

**창세기 39장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1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2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3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20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21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22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23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 39 장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바로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겪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은 2 절과 3 절 그리고 21 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일이 잘되게 하시는 부분과 9 절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요셉의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 온 사람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인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간음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지만, 간음이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요셉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계속되는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강제 노동과 같은 벌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감옥은 죄수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재판없이 감옥에 오랜 시간 가두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 20-23 절은 감옥안에서 지내는 요셉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지만, 간수장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요셉이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게 완수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이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다**

1 이런 일들이 있는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2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3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1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22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23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 40 장에 나오는 술잔을 올리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의 직책은 이집트 왕의 최측근입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때문에 의심도 받을 수 있고, 죽을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 40 장에서는 두 시종장의 꿈 이야기와 요셉의 해몽이 나옵니다. 각각 다른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데, 40 장 8 절에서 요셉은 해몽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 두 시종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풀려나고 (잔을 바치는 시종장) 처형됩니다 (빵을 굽는 시종장). 잔을 바치는 시종장은 잘 되는 날에 기억해 달라던 요셉의 부탁은 잊어버립니다. 해몽대로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요셉은 풀려날 것을 기대하였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23 절에서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과 크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13 절과 19 절에서는 '머리를 들어 올린다' 라는 표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직위의 회복을 하나는 목베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조됩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1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39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40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 41 장은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40 장의 일이 있는 지 2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 기간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요셉은 해몽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16 절). 해몽에서 요셉은 7 년의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하는데, 7 년의 흉년이 이 지역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1-8 절에 나온 꿈 내용이 17-24 절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꿈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 바로는 30 살의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소년 (12 절)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인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본문에서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